

센터장 김장열  
(02-3779-3531)

## 김장열의 SEE-IT Note

[6월 모멘텀+외국인 관심 증가] → 주가 상승압력 가능성 높아



에이비엘바이오 (299380.KQ)

시총 1.5조 (5/22)

현재주가 33,250원

외국 지분 2.6%

### <기업 개요>

3가지 강점이 매력적: 글로벌 경험/자금확보/ 기술계약및 공동개발 협력

이중항체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 플랫폼을 핵심 기술로 신생혈관 억제, 면역항암제, 퇴행성 뇌질환 중심으로 총 2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Genentech등 글로벌 제약사및 연구기관에서 신약 연구개발 경험과 스타트업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케미칼 바이오사업 총괄 출신인 이상훈 박사/CEO가 16년 2월 설립, 18년 12월에 상장했다.

글로벌 기업 경험이 풍부한 CEO와 핵심 임원을 포함 50여명의 인원의 실전적 경력과 응집력, 리더십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자금력 (상장전 3차례 유증으로 990억+ 공모자금 900억, 3월말 현금성자산 1300억) 확보도 긍정적이다. 설립 후 3년간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 기술수출계약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 한 점도 (기술 이전계약은 총 5건으로 공개된 계약규모만 12억달러, 19년 1월 지놈엔컴퍼니와 신규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에 대한 공동개발, 2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우시바디 플랫폼을 도입, 플랫폼 기술및 적응증 확대 중 등) 강점이다. 동사의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임상전 단계인데 면역항암제 관련 이중항체 기술에 대한 15~18년 기술계약건을 보면, 주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계약이 체결되었고, 파이프라인당 평균 3.2억달러의 가치를 부여받았다.

### <기본 사업 전략>

이중항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전략. Open Innovation, 통합된 R&D Team, 초기 기술이전 (L/O, License Out) 전략을 통해 빠른성장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무안정성을 도모한다.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유지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장의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겨냥한다. 단독 항체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15~20%에 그쳐 치료제의 한계가 있다. 1세대 화학요법 (정상세포도 표적이 문제, 다양한 부작용) => 2세대 표적 항암제 (특정환자에게만 적용 가능, 소수 환자에게만 약물 효능 보이는 문제점) => 3세대 면역항암치료제 (T세포 활성화 면역관문조절물질을 억제). 동사는 여기 3세대에서 이중항체로 보완하여 기존 업체대비 1/3~1/4 가격으로 제공한다. 한편,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근본적 치료제는 아직 없다. (미국) 연 6만명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2.3마명이상이 사망, 1.5백만명이 파킨슨병으로 영향 받는다.

### <6월 모멘텀/외국인 관심 증가 가능성>

5월말~6월초 미국 시카고 ASCO (임상 종양학회)에서 ABL001의 (신생혈관 억제 항암항체, anti-VEGF/DLL4 이중항체) 임상 1a관련 내용일 발표될 예정이다. 임상 1a에서 부분약물반응 (partial response) 을 보여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양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된 상태이다. 또다른 학회에서도 제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코스닥 시총 14위)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2.6%에 불과해, 코스닥 Top 20 종목 중 외인 지분율이 가장 낮다. 6월중 외국인 관심 증가 가능성이 엿 보이며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비엘바이오 플랫폼 기술>**

현재 시장 판매 중인 제품은 실질적으로 2개 정도 (암젠의 Blincyto/14년 FDA승인과 로쉬의 Hemlibra, 17년 FDA승인)이고 임상 2상 단계에 MedImmune가 있고 그 다음 1상에 에이비엘바이오과 OncoMed, abbvie, Immunomedics, Merus가 비슷한 단계.

**파이프라인 (16년 3개=> 현재23개)**

신생혈관 억제항암항체 ABL001

(anti-VEGF/DLL4 이중항체)가 표적항암제의 치료 내성 극복해서, 임상 1b 19년 하반기 예정. 기존의 anti-VEGF 치료제 (Avastin, cyramza등)에서 나타나는 VEGF (혈관내피성장인자) 내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ABL001은 혈관형성을 저해하는 VEGF와 관류저해를 시키는 DLL4를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신생혈관 억제활성을 갖도록 디자인함. 폐암/위암 동물 모델에서 항암효과를 확인함.

그 밖에 비임상단계인 항체약물접합체 (ABL201-20X), 초기물질발견=>후기 진입 단계인 T세포 관여 이중항체 (ABL10X),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ABL50X), 신규면역항암항체 (단독항체, ABL40X), 비임상 직전인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ABK301, 30X, a-Synuclein/BBB)가 있음.

**<신생혈관 억제항암항체 ABL001 (anti-VEGF/DLL4 이중항체)>**

**: 이중항체로서는 국내 최초 임상진입**

Avastin (Genetech)은 17년 매출 68억달러, 대장암/폐암/난소암/신장암/뇌암 적응증으로 치료. Cyramza (Lilly)는 17년 매출 7.6억달러, 대장암/위암/폐암/신장 적응증으로 치료. 최근 보고된 추가 적응증은 간암, 방광암.VEGF&DLL4동시 억제를 통한 VEGF내성 극복으로 종양크기 감소와 관류저해로 종양크기 감소. Avastin대비 50%이하로 현저한 감소. OncoMed사/abbvie는 에이비엘바이오보다 1~2년 개발단계 앞서 있지만 적응증이 각각 난소암, 대장암으로 에이비엘의 위암과 다름. 에이비엘은 19년 3분기에 임상 1b 착수 예정인데 화학 병용투여 요법, Anti-PD-1 치료제 병용 투여 용법 (Keytruda) 예정임.

**<면역항암제>**

카터 미 대통령의 암치료를 가장 유망한 신약중 하나인 Keytruda (pembrolizumab) 투여. PD-1/ PD-L1에 의해 치료받는 15~20% 환자만이 혜택.

**ABL503 (PD-1/4-1BB) : 4-1BB의 면역항암제의 간독성 극복.**

2000년 초 BMS가 개발한 Urelumab (4-1BB)은 항암효과는 뛰어나지만 간독성으로 개발 종료. 이러한 간독성을 해결하기 위해, 암연계항원 PB-1과 T세포 관여 4-1BB를 이중항체로 만들어 암 미세화환경에서만 4-1BB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항암효과와 간독성 문제를 해결함. ABL503은 중국 아이맵과 공동 개발.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PD-(L)항체를 투여받고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이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

T세포관여 항체 파이프라인 중 2개는 (적응증: 혈액암/유방암) TRIGR사에, 2개는 (혈액암/고형암) 동아에스티에, 2개는 (대장암/ 유방암,위암)은 유한양행에 L/O되었고 현재는 공동 연구개발 단계.

아이맵사와 협력으로 4개의 이중항체 (PD-L1+ Novel I/O). 1개의 First-in-class & 3개의 Best-in-class 이중항체, 50:50 비용분감, 미국 IND (20년 초 목표)및 글로벌 제약사에 License-out계약 체결 추진. 아이맵은 인원 140명 (임상 60명)의 홍콩 상장 예정 (시총 2조 예상) 기업.

<ABL301 (a- Syn, BBB RMT), 파킨슨병 치료제의 혈액 뇌관문 (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

파킨슨병은 a-synuclein의 (알파시뉴클레인) 축적에 따라서 뉴런전달및 신경독성 발생으로 발병. ABL301은 세포간 이동과 신경세포 염증을 차단함으로써 응집체 결합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미세아교세포 (Mirogilia)에 의한 응집체 제거를 용이하게 함. 단독항체 대비 뇌 전달율이 4.5배까지. 즉, 응집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미세아교세포의 식균작용을 촉진시키면서 세포간 이동을 억제시켜 BBB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 ABL301 시장의 경쟁사로는 DENALI가 있음. 나머지 5개 기업은 단독항체.

글로벌 BBB플랫폼&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의 최근 L/O 사례: 계약시 평균 개발 단계는 비임상, 평균 계약 규모는 5억달러.

[도표1] 에이비엘바이오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b>Sector</b>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b>Company</b>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53.2%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0.6%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46.2%	
		합계		100.0%	